

#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9년 8월 6일 (화) 14:00

장 소 :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

(심사위원회 시작)

○ 의정팀장 최민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민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내실 있는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위원회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다 처음 만나시는 시간이 되어서 참석자 인사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호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발표 그다음에 심의 안건 심사 의결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의를,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우 법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죠.

○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아, 네.

저번에 한 번 잠깐 뵙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한 20년 정도 시흥시 하중동에서 법무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뭐 이미 서로 면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시흥갯골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최민석

이희연 시흥신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지난번에 뵈 분도 있고 김영곤 부이사장님은 오늘 처음 뵈 것 같고요.

참, 저희가 어쨌든 막중한 책임을 맡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제대로 된 심사를 해서 대외적으로도 욕먹지 않는 해외 출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정팀장 최민석

김영곤 새오름포럼 부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새오름포럼부이사장 김영곤

네, 안녕하십니까?

새오름포럼 사단법인입니다.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고요, 지난번 우리 첫 모임 때는 제가 어떤 다른 협회 일 관계로 해외를 잠시 다녀오는 일이 있어 가지고 겹쳐 가지고 오늘 처음 뵈게 되었습니다.

또 포럼 외에는 우리 시흥시 건축가협회라고 있습니다. 건축사협회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건축가협회는 시흥시에 창립된 지가 오래 3년째 접어들고요, 저는 지금 2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뵈, 제 소개시간이니까, 우리 건축가협회는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우리 전국에 광역시도에만 있습니다, 건축가협회라는 단체는.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흥시만 시군 단위에 전국 최초로, 아직까지 현재 저희들만 현재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있지만 경기도 시군구 중에서는 우리 시흥시밖에 없다고 이래서 우리 시흥시가 도시 건축 이런 문화행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가협회(건축가협회) 회원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저는 시흥에 와서 건축을 접하게 된 것은 한 20년 정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건축사이면서 건축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종 자주 뵈고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정팀장 최민석

이자영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이스사업팀 파트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경기관광공사해외마이스사업팀파트장 이자영

안녕하세요?

시흥시의회 의원님들의 출장을 내실 있게 잘 짜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관광공사는 최근에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관광 분야의 어떤 대책을 위해서 어저께도 저희가 대책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본인들을 경기도로 유치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고 주 업무인데 그것을 전면 중

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또 그것에 의한 경기도 내 관광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또 노력하겠다는 이런 저희 경기관광공사의 근황이 있는데요, 여담이었고 이번 의원님들 출장을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면밀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최민석**

홍석표 윗터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성훈창 의원님은 오늘 부재중이어서요, 다음에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위원장님 선출이 있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호선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역할은 위원님들 대표하여 심사 위원회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간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님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서정우 법무사님을 추천합니다.

○ **의정팀장 최민석**

네.

○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제가 먼저 우리 김영곤 건축사님 좀 소개해 올리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것이 우리 김영곤 새오름포럼 부이사장님이 적격이 아닐까, 저는 김영곤 부이사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의정팀장 최민석**

서정우 법무사님하고 김영곤 부이사장님…….

○ **새오름포럼부이사장 김영곤**

제가, 저는 실은 우리 법무사님을 좀 소개, 추천하고 싶거든요. 저는 법무사님을 정식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저는 개인 다른 단체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포럼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오랫동안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직업적으로도 또 법리에 대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운영을 리드해 가시는데는 상당히 적임자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정팀장 최민석**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래도 두 분이 추천되었으니까요,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정우 법무사님이 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지금 참석하신 분의 만장일치로 서정우 법무사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옮겨 앉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우 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인 도시환경위원회 그 공무 국외출장 담당자이신 음, 성훈창 의원님은 제외가 되었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진행하면 돼요?

○ 의정팀장 최민석

네, 진행하시면, 제안설명을.....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어쨌든 저를 위원장 자리로 옮겨 주셔 가지고, 사실 회의 진행만 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은 저보다 이런 여러 가지 시민사회와 의견들을 잘 주실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만 믿고 그냥 자리 앉아서 순서를 잘 챙기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진행 중에 좀 미흡한 것이 있거나 좀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합리적으로 다수 의견을 따라서 사실은 그 의원님들이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기회들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부적절한 것은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의견도 보태서 나가시는 김에 정말 해외에서 많은 것들을 좀 담아 오실 수 있도록 우리도 계획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같이 좀 해 주셔서 우리 시흥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우리 심의위원회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전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원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사봉 타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안녕하세요.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네, 반갑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이 있음)

오늘 저희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 국외출장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돌아오는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공무 국외출장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목적은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와 도시재생의 해외 우수사례를 탐방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조사 분석해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높이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동기 및 계획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선진사례 비교 분석 및 추진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도시 전반의 아이시티 기술 활용 사례 실천 및 적용 방안을 검토하며 도시 재생의 다양한 사업 모델 및 우수사례 조사 분석 민관 협력 구축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장 기간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19년 9월 22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출장국은 프랑스와 스페인입니다.

이번 공모국외 출장에 동반하게 되는 의원으로서는 위원장인 김창수와 이복희 위원, 오인열 위원, 성훈창 위원 이상 의원 4인과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그리고 서기 그리고 홍보 기록에 1명 3명과 스마트시티사업단 직원 3명이 대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각 의원별로 방문지에 대한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저 김창수 위원장은 이시레몰리노 및 산탄테르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 이복희 의원은 프랑테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인열 의원은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성훈창 의원은 메트로폴리스-30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시레몰리노 및 산탄테르는 파리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1990년대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도시로서 이시그리드라고 하는 앱을 이용한 도시재생과 스마트를 구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울러 이복희 의원이 담당하게 되는 플롬나드 프랑테 담당은 도시의 흔적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도시재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인열 의원께서 담당하게 되는 바르셀로나 악티바 투에니투 담당은 스마트 주차 시스템과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버스정류장들을 벤치마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훈창 의원께서 담당하게 될 매트ropolis-30은 도시재생과 특히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한 벤치마킹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출장 경비는 나와 있는 표에 따라서 의원 1인당 365만 7,270원씩 책정되어 있으며 기 배포해 드린 자료보다 1인당 12만 5,000원씩 항공료가 현재 인상되었습니다. 항공료가 인상된 원인은 저희가 견적을 보고 발권을 하기 전 단계이므로 오늘 심사위원회가 무사히 마치게 되면 확정된 금액으로 발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무 국외출장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연구 개발 실증 사업을 통해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잡힌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을 강구하고 원도심과 상생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적합한 도시재생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우** 법무사사무소 서정우

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이나 내용 외의 것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일정을 아주 타이트하게 짜신 것 같아요.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1개 기관만 기관 관계자가 섭외가 됐고 지금 섭외중 인가요? 아직…….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섭외가 완료된 곳이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인 기착지는 아닙니다. 스페인이 도시재생과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스마트 기법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이루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선상으로 콘택트를 해서 방문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확답은 받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문을 통해서 일정을 확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국제적으로 가기로 해 놓고 안 가서 망신을 떠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네.

○ **새오름포럼부이사장 김영곤**

지금 출장의 효과에서 이미 발표에서 적시를 하셨는데 그 신도시와 원도시 간에 균형이라고 할지 어떤 도시재생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 이런 쪽에 선진화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지를 둘러보는 것이 이렇게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건축사이기도 합니다만 실은 제가 우리 시흥시를 이렇게 최근에 엘에이치가 주도적으로 해서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도심권은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상승해 버렸어요.

그런데 막상 구도심을 다시 개발하려고 하면 비용 부담이 너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현행법상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구도심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요즘 부각되고 있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어 가는 전략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뭐 목감동이든지 이렇게 몇 몇 군데가 구도심권이 상대적으로 신도시가 완전히 구축되어 버리고 나면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아예 낙후되고 슬럼화 되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오실 때 그런 쪽의 선진 사례를 좀 잘 벤치마킹 하셔서 가지고 그들과 우리들과의 반드시 같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아니겠지만 모범 사례를 우리 도시에 맞게끔 이렇게 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답사 여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지금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세 군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왕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천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두 가지는 마을 살리기 형태입니다.

저희 이번 방문지 중에서 플롬나드 프랑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도시 현 지역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도시의 재생을 이루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사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서 우리 국내에 있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구도심들의 재생에 대한 벤치마킹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도심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구도시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슬럼화 되어 가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계획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정왕, 배곧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정왕동이 도시계획상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 분야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층고의 제한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특히 시흥시에서는 정왕 뉴딜사업을 통해서 그런 고도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완화 준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이복희 의원께서 담당하고 있는 도심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벤치마킹 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새오름포럼부이사장 김영곤**

기왕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오인열 의원님이신가요? 교통 문제를…….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스마트 주차 정류장 아이시티 기술을 이용한…….

○ **새오름포럼부이사장 김영곤**

네, 저희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흥시가 마을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분산이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열악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해도 이동이 특히나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이런 초·중·고등 학생들이라든지 일반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좀 혹시나 저는 이 도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교통 이런 주차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도시 전체를 이어줄 수 있는 혈관 같은 그런 교통에 대한 이런 선진 사례도 우리 시흥이 절실한 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감사합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학습한 바에 의하면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올림픽을 통해서 각 핵심 지역 간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느 한 곳에 중심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다핵을 가지고 있는 다핵도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중교통들이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스페인 쪽에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출장보고서는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출장보고서는 각각의 의원님들이 쓰시게 되나요? 어떻게…….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일단은 각각의 의원님들이 지금 네 군데 파트를, 물론 다 함께 하지만 집중적으로 사전에 스테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출장보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공무 국외출장의 좀 특이한 점은 타시는 모르겠습

니다만 우리 시흥시에서 실시하는 의원들 공무 국외출장에 집행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작년 여수 순천에 대해서 갯벌의 이용 상태라든지 또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오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현장감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것을 시행할 때까지는 걸림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무 국외출장을 하면서 스마트도시와 도시재생에 관여된 해당 부서의 직원들을 대동하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보고서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잠시 저희 사무국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하고 있는 사업을 커스터마이징 함으로 인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9월 달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2020년 예산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이것은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동행하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출장을 통해서 오랜 기간 그 배워온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간부급보다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좀 젊은 팀장 내지는 직원들을 동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시티사업단 1964년생 과장 한 분하고요, 그리고 팀장 둘이 동행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직급을 거론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장급들이 대부분 동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급 1964년생 과장 1명 그리고 나머지는 팀장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해외마이스사업팀파트장 이자영**

일단 저는 관광공사에서 왔으니까 제 입장에서 좀 여쭙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주중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좋은 일정들을 많이 넣으신 것 같고요, 이 일정대로 잘 소화를 하시면 우리 시흥시 개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어차피 기관 방문이 힘드니까 저는 이렇게 멀리까지, 유럽까지, 선진지까지 가셨으니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님들 특히나 바르셀로나는 잘 아시지만 다들 가우디의 도시지 않습니까?

워낙 선진지로 대표적인 사례이고 모든 여행 작가들이 가장 완벽히 살고 싶어 하는 도시 1위로 뽑는 지역이 바로셀로나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보통 일컫는 지역인데요, 기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셔서 최대한 많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죠. 여러 가지 그 구도시와 신도시의 정말 완벽한 조화를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저도 여기 중에서 가본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심지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관광객이 너무나 몰려서, 너무나 몰려서 그 지역 주민들도 힘들어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을 만큼 바르셀로나는 대표적인 도시와 개발과 관광의 대표 장소인데요, 가셔서 이 안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구도시와 신도시의 개발의 조화로움, 그리고 이 도시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보신 부분에 대한 소감과 거기에서 시사들, 시사점을 추론해서 가지고 결과보고서에 잘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흥시가 도시개발과 더불어서 관광 분야에서도 또 잠재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축제 이런 것도 시간이 맞으면 참 좋은데 아마 뭐 9월 말이면 찾아보시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제가 아니더라도 아마 1박 2일로는 모자랄 만큼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곳이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이므로 아무튼 최대한 많이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가지고. 주중에는 열심히 기관 방문하시고 공부하시고 주말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정을 짜면서 평일만 공식 방문이라든지 벤치마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곳에다가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료를 좀 보니까 과거 자료는 시간별로 타임 테이블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가 과거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학교 다닐 때 수업시간 이외에 캠퍼스 생활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일정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함께하는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직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과시간 내에 공식일정에 집중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현지 실정에 맞춰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퍼블릭 마켓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도시와 구도심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고 잘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몸으로 부딪치고 체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서에 함께 담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저도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한 가지 정도는 그냥 제안을 드리고 하나 정도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무출장 심의 관련해서 처음 진행을 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특성을 잘 좀 고려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 이미 하고 계십니다만 일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는 것하고 조금 다르고 시의원의 지위라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정치성과 권한의 재량성이 상당히 큰 직무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확실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오는 이런 것은 사실 시의원님들의 폭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길을 가다가 풀 한 포기라도 보더라도 그냥 공무원들이 가서 도식적으로 보고 오는 것과 좀 시흥시의 근본적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이래서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만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고도의 재량성을 기초로 한 계획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이자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많이 보고 오시라는 것은 행정기관이라든지 뭐 기타 원래 목표된 것을 열심히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일상생활도 열심히 보고 오시는 것이, 그것이 와서 바로 우리의 결과물로 나오지 않더라도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자주 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을, 그러니까 시흥시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나가시는 것이 자주 가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정 분야를 목표로 가기는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은 사실은 시흥시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추구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많이 보고 오시라, 저는 그렇게 하고 계획을 짜실 때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번에 스마트시티나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안 본다고 하실 필요가 없듯이 가시면 전통시장도 한번 가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볼 수 있도록 좀 복합적 사고를 가지시면 더 좋겠다. 의원님들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그런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늘 처음 이런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정의 예외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것은 제안이고요.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두 가지 목표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을 목표로 이번에 출장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계획서도 왔습니다만 미리 가시는 의원님들끼리 워크숍을 하시는 것이죠?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워크숍을 하실 때 외부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뭐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지금 저희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보통 의정연구회라든지 또는 정책연구소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사실 저희가 이 공무원외출장을 준비했다가 사회적 물의가 좀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올해로 미뤄놓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의 정책연구소에서 제안을 받고 그리고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출장 국으로 잡은 스페인과 프랑스는 서울대학교에서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시다, 사실은.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아까 질의 권고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시흥시의 근본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 특정 분야가 아닌 그런 분야도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고를 충분히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공무원외출장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기관이 된 곳에서는 우리 시흥시에서 직접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방문 일정을 픽스했고 나머지는 오늘 심의 통과하게 되면 공문상으로 하게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지에 대한 사전 스터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밖에서 이번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대한정책연구소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드릴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 군데 진행하는 업체와 콘택트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기관이 콘택트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았고요.

물론 금액적인 부분도 공무원 해외출장 규정에 따라서 그 금액 내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도 감안했고 그리고 저희가 출장지로 잡은 곳에 대한 섭외라든지 또 사전상식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워크숍에 자료를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심의가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관 방문지에 대한 컨펌 공문도 보내서 확정을 지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들이 각각의 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는 대한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고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제가 외부 도움을 받고 계신다니까 좀 든든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시는 목적에 맞게 스마트시

티라든지 도새재생 쪽 관련 과장 1명 팀장 2명이 행정기관에서 가시는 것을 제외하고 사실 도시재생이라든지 스마트시티의 미래도 사실 민간영역의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민간영역에서 좀 외부 전문가들, 그러니까 정책 아웃소싱 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아주 뭐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분은 비록 아니더라도 민간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 한두 분 섭외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듣고 가시면 저는 생각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적어도 의원님들이 각자 맡으셨잖아요? 4개 분야로 맡아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신 것 같은데 가서 눈으로 보면 갑자기 질문을 하거나 어떤 쟁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미리 우리 질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서 좀 파악해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스터디 하실 때 적어도 질문지와 비슷한 어떤 업무사항을 좀 정리해서 갖고 가시면 뭐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이렇게 가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시고 우리 시흥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작성할 때 우리 좀 도움을 받아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부산을 벤치마킹을 가면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연구원 박사님께 스마트시티에 대한 그런 스터디를 이미 마쳤고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간 분야의 전문가 또 내지는 시민들 또 내지는 언론도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절차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이 출장을 간다고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절차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전문가 또 집단 분들에게 많은 스터디를 해 왔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인증을 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파악하고 있고 지금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녀와서 또 가기 전이라도 전문가들의 제안이라든지 또 아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신 우리가 가서 꼭 보고 와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짧게 질의 순서를 마치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시티나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학자나 이런 전문가 그룹들은 외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멀리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가는 제1의 목적은 저는 스마트시트를, 도시재생을 설계하는 전문가가 없어서 가시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접목되고 현실 도시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고 오시는 것이 쟁점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참 시의적절한 출장이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갖고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뭐 고생하시겠지만.

좋은 결과 많이 갖고 오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시흥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응답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 잘 다녀오시라고 아직 말씀을 드리면 안 되네요, 심의 결과가 남아 있어서.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장님 발표하신 것 그다음에 우리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사이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견이나 아니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흥시의회의원 박춘호

이 심사 자료에 보면요, 물론 공무원 외출장 심사위원회라고 그래서 자료가 쪽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출장 목적이라든가 동기 및 내용하고 일정은 있지만 출장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어떤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출발하고 도착지만 나와 있는데 그 세부적

인 일정 이런 것이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해요.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물론 우리가 몇 군데 지난 1년 동안 저희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만 가서 보는 관점은 참 타이트하게 어떻게 보면 그 도시에 맞게 잘 되어 있다는 이런 것이 눈에 띄지만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와서 우리 시에 그만큼 접목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세부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들어있지 않고 거기 현재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만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같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지만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 예천군의회라든가 예천군의회 사태가 있고 현재 이 내용을 보면 부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에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시기가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출장인원이 과다하다. 그다음에 과도한 방문국가가 들어가 있고 목표달성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이런 것이 제동이 걸린 사례가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저는 이 출장계획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네, 의견 주시면…….

○ 새오름포럼부이사장 김영곤

저도 잠깐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접촉 예정인물 이런 데 보면 아직 심의 상정 중이기 때문에 섭외 중, 관계자 섭외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이 굵직, 굵직한 도시들을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막 1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스마트시티 분야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은 우리 시흥에 대한 현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특정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하루씩 잠깐, 잠깐 이렇게 도시를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을 정도의 무슨 그릇에 뭐를 담아올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그쪽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 오는 정도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좀 많이 축소시켜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셀로나면 바르셀로나 주시지만 그 거대한 도시가 우리 시흥하고 접목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면 바르셀로나에 있는 특정 건물을 하나, 그 사람들은 왜 100년 동안 그 건물을 계속 짓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디테일한 분야를 하나씩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이것이 뭐 아까 대한정책연구원 뭐 세 군데에서 이렇게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정책 자문을 해 준 세 군데 연구소는 우리 시흥에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흥에 그렇게 연구소가 많은 것 같지 않아서.

그 분들도 만약에 서울에 있고 우리 시흥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 우리 시민들 중에서 시흥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디테일한 분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켜 놓았으면, 압축시켜 놓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드네요.

이것이 프로그램이 많고 일정이 포괄적이다 보면 그냥 이렇게 갔다 와서 결과물은 책 한 권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이 깊이 있는 것은 좀 부족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조그마한 마을 공원이 잘 되어 있으면 그 공원을 거의 하루 종일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면 다음 날 또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일정 중에도 필요하면 뭐 브레이크를 걸어서 뒤로 1개를 제외시키고 추가적으로 여기를 하루 이틀 더 보겠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심의 위원들이 추후에 결과물에 대해서 심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책연구소라는 세 군데에서 자문을 받았던 그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시흥에도 지금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재생 이런 것이 머지않아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접목할 수 있는 집약된 분야,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네.

구체적으로 의견들을 쪽 주시면 우리가 뭐 보완 결정을 할지 이런 것은 다시 결정을 하실 것은 의견들을 한번 쪽 주시죠,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이것을 언제까지 저희가 의견을 줘야 되는지…….

○ **의정팀장 최민석**

오늘 의결까지 하시면 됩니다.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만약에 이것 안건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죠?

○ **시흥시의회의원 박춘호**

못 갑니다.

○ **의정팀장 최민석**

못 갑니다.

##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아니, 우리 이희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정상 만약에 오늘 보류가 되면 한 번 더 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그 시간의 기간이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 ○ 의정팀장 최민석

그것은 따로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결이라는, 보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고 의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두 가지…….

## ○ 새오름포럼부이사장 김영곤

조건부 의결 이런 것…….

##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조건부 의결이 가능하죠.

## ○ 새오름포럼부이사장 김영곤

뭘 보완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보는 조건부로…….

##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하면 되죠.

## ○ 시흥시의회의원 박춘호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행안부에서 공무 국외출장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다시 올해 조례가 수정 돼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원래 한 달 30일 전에 아마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한 달 30일 전이면…….

## ○ 의정팀장 최민석

30일 전에 접수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결이나, 찬성이나 인데 통과냐, 안 할 것이냐 안건에 대한 사항 가지고 조건부 의결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아니,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의견 나오셨으니까 들어 보시죠.

## ○ 의정팀장 최민석

네.

##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그러면 우리 관련 법령이 있죠?

## ○ 의정팀장 최민석

네,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조례?

○ 의정팀장 최민석

조례 좀…….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아, 그러니까 조례 좀 하나 뽑아서 주시면 우리가 같이 검토해 보시면 되죠.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그리고 우리 박춘호 의원님이나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계획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리고 김영곤 위원님께서 너무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고 수박 겉핥기식 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지금 일정이 보니까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2개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5개 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뭐 2개 내지 3개 도시로 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 5개 도시 중에 좀 잘 되어 있는 도시를 찾아서 좀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니면 다양한 도시를 뭐 디테일 하지는 않더라도 많이 보는 것이 더 나으냐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 새오름포럼부이사장 김영곤

네, 뭐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답사를 할 수 있다면 뭐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과연 이렇게 날마다 다른 도시를 하루씩, 하루라고 해 봤자 한 뭐 8시간 남짓일 텐데 식사시간 빼고 하여간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그 정도 시간으로 도시를 하나 둘러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러면 그 도시 중에 공원이 됐든 그 도시 중에 주차장이 됐든 그 도시 중에 어떤 특정한 건축물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아니면 그 도시의 어떤 문화가 됐든 이렇게 좀 축소시켜 주면 좋겠다.

바르셀로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뭐를 보겠다. 그렇게 좀 약간 축약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의정팀장 최민석

그것은 차라리 아까 도시환경위원장님 계실 때 의견을 제시하셔서 의견을 받으셨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새오름포럼부이사장 김영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의견을 여기서 지금 추가로 우리 의견들을 넘겨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 의정팀장 최민석

그래서 그것의 강제력이 생기지 않죠.

그것을 들어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제도상 조건부를 할 수 있는지…….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아니, 일단 의견들을 주시면 의견부터 쪽 한번 종합을 해 보고 우리가 조례도 갖고 올 것이니까 한번 봐서 수정이나 조건부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어디 멀리 가지지 않았을 테니까…….

○ 의정팀장 최민석

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우리 보고시간을 다시 재개를 해서 내부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죠?

출석하셔서 발언하실 때 저희가 그 계획서 자체를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 의정팀장 최민석

네, 그러면…….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결국은.

다른 의견도 좀 주십시오, 아까 주신 분은.

○ 시흥시의회의원 박춘호

지금 이것은 다른 기관 섭외가 끝난 거예요?

○ 의정팀장 최민석

섭외 중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우리 쪽에서 의결이 안 났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 못 해서 최종 확정을 못 짓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이자영 위원님은 뭐 의견이 어떻습니까?

○ 경기관광공사해외마이스사업팀파트장 이자영

저희도 선진사례 답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테마가 축제 또는 마이스라고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선진사례 답사를 가고 저희는 전문가 분을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가지고 되게 공감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규정상 여기 의회는 안 되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그 전문가 한 분이 동행하시는 것이 출장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매일 워크숍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료도 준비해 와서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밤마다 일정은 굉장히 빡빡하죠, 공부를 매일 하니까.

그런데 정말 다녀오면 모든 31개 저희 경기도 시군 공무원 분들, 도청 분들 진짜 이 출장만큼은 정말 꼭 가야 한다고 다들 말씀하시는 그런 출장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전문가 분들이 한 분 두 분 동행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실 그렇게 전문가 분이 가시면 이렇게 네 분 다섯 가는 것은 좀 아깝고 사실 더 가셔서 공부를 진짜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출장이

되면 참 좋은데, 그리고 기관 섭외는 저희도 몇 번 많이 해 보니까 굉장히 좀 마지막까지 그 섭외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혹시 오늘 의결되시면 부지런히 움직여서 가지고 그 섭외를 충분히 잘 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이자영 위원님께서서는 타이트하더라도 많은 도시를…….

○ **경기관광공사해외마이스사업팀파트장 이자영**

저도 두 가지 양면의 생각이 같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것이 사실 유럽 가면 너무 오기 쉽지 않은 것이라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가서서 가서 최대한 많은 곳을 찍어야 된다는 약간 강박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타입보다는 그 도시에 체류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공존을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하나 고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아까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시간대별 일정을 안 넣은 것은 거기에 얼마이지 않고 다니고, 얼마인다고보다는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대별로 맞춰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 **의정팀장 최민석**

이 상태에서 추가로 좀 더 세부적인 타임 테이블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주요 방문기관지로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기관들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지금 의견 주신 것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올라온 공무 국외 의원님들 해외출장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방문하는 도시도 많고 파리와, 그러니까 프랑스와 스페인 국가도 2개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일견 느끼기에는 학습보다는 한 견학 정도 뭐 이런 의미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 짜여진 것은 좀 깊이 있게 보기에 한계가 있고 1개 도시에 가서 행정기관 담당자가 섭외되면 그분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 듣고 안내하는 곳 가보고, 그리고 일상 구체적 디테일한 곳을 가보기에는 시간이 거의 없고요, 또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좀 쪽 이렇게 스마트시티나 도시재생 중심으로 시에 실현된 부분을 그 외

부적 요건들을 쭉쭉쭉 좀 보고 오는 대체적으로 그런 일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장의 특성은 지금 계획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달리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특성으로 보면 뭐 그렇게 하자가 있는 계획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시간 테이블이나 이런 것은 아직 조금 부족하고, 특히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각 방문하는 도시의 자료 같은 것은 너무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올려놓은 정도 수준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좀 미리 학습도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들을 좀 보시다시피 공식방문 현황 해 가지고 각 도시별 했는데 체 1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한 도시 가는 것을?

그래서 좀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은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느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출장의 성격을 그렇게 좀 가볍게 여러 개를 보고 오는 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의결을 해 줄 것인지, 그러니까 자료가 부족한 것은 위원장님 들어오라고 해서 다시 보충을 하도록 하든지 하면 그것은 가능할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결해도 좋겠다는 생각이신지 여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이라는 아이템상 그것은 좀 너무 부적절하다. 차라리 스페인 한 나라만 가든지 프랑스 한 나라만 가든지 집중적으로 갔다 와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주마가편 식으로 보고 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그러니까 우리 기초적 고민부터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한번 접근해서 제가 전자에 설명 드린 의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 하면 조건부는 아니어도 보완을 하면 되잖아요? 보완을 하면 되고 그것이 아니고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마트시티 하나 아니면 도시재생 하나 아니면 나라도 스페인 또는 프랑스 한 군데 딱 정해서 가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달고 이 계획서는 부결할 것인지 이런 것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갖고 한번 다시 좀 논의를 해 주셔서 가지고 김창수 위원장님 다시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좀 부적절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것인지 그렇게 하시죠.

관련해서 의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위원장님, 김창수 위원장님 모셔서 저희가 논의했던…….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내용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죠.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다시 오시라고 해서 한번, 멀리 안 가셨으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계신가요?

(「네」 하는 이 있음)

네, 다행입니다.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 회의장 등장에) 다시 좀 모셨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위원장님 나가시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좀 다양하게 있었고 계획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논의되었던 몇 가지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각이 하고 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계획서 자료 자체가 너무 좀 부실하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자료가요?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네, 방문지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출장 목적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설명으로 하셨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 그다음에 일정은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시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너무 얽매는 것 같아서 좀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몇 시 몇 분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전 오후라든지 좀 어느 정도 하루 일정 정도가 각각 표시될 정도로 구체성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그 일정의 구체성이 좀 결여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출장 목적을 다수의 도시와 방문 기관을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서 학습이 되겠느냐, 차라리 테마를 한두 군데로 집약해서 좀 집중적으로, 방문지를 줄여서라도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다시 모시게 된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할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의사 도와주시는 분 얘기는 수정 의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제시된, 말씀드린 문제와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포괄해서 좀 변경된 계획으로 이 공무 출장을 수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다시 좀 모셨습니다.

##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네, 말씀하시죠.

##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일단 그 방문지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국외출장 일정이 디테일하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제출해 드리지 않았는데요. 추후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을 집중해서, 좀 줄여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그 의견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곳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 우리 최양선, 이것 드릴 수 있죠?

(「네」 하는 이 있음)

이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서 테마도 한 가지 정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일정 조율, 아직까지 발권도 안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위원회 당시에 항공료 수정도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무리는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대부분 이동기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을 주 타깃 출장지로 잡았는데 9일의 일정기간 동안에 또 항공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파리를 경유하는 것이 스케줄을 잡는데 좀 편리하다는 판단 하에 기왕에 갔으니 파리 쪽에서도 좀 보고 오자는 이런 취지로 사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주신 의견 가능하면 일정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네,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좀 해 주시죠.

질문하시거나 위원장님 계실 때 말씀 좀 해 주시면…….

##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사실 진행하는, 그 진행을 도와주는 곳에서 오늘 좀 일찍 도착해서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

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이동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좀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적해 주시니까 오히려 편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그러면 그 구체적 하루 일정은 지금 제출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참고하기로 하고 다른 것 뭐 지금 방문일정은 말씀하신 취지로 들어보면 가능하면 한 곳으로 집중해서 하실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하시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 새오름포럼부이사장 김영곤

네, 조금 부연해 보면 우리가 시흥시는, 우리 시흥시는 그렇게 그다지 큰 도시는 아니지만 선진화 돼 있는 큰 도시에 가서 구체적 일정을 저희들이 보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공원이라든지 우리 시흥시가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곳들을 사전에 섭의를 하셔서 가지고 여행지를 집약해버리는, 이런 것이 추후에 성과적으로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도시에 볼 것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흥시와 어떤 시흥시로 봤을 때 좀 선진지 견학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가 됐든, 시설이 됐든, 도시가 됐든, 환경이 됐든, 교통이 됐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도움 주시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흥시 실정을 잘 아는 그런 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 약간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켜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것을 이렇게 또 담으려고 하다 보면 일정에, 결코 긴 일정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두 나라지만 도시가 몇 개씩 이렇게 나열돼 있으니까 한 10일도 안 되는 일정, 9일 가고 오는 시간 이렇게 빼면 일정이 많지 많은데 다양한 일정을 많이 잡아 놓으면 결과적으로 깊이 있게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우리 시와 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구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 사이즈를 감안해서 우리 시에 꼭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들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감사히 받아들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더 이상 질문할 것 없으시면 퇴석하셔도 좋으시면 나가시게 하고 제출한 국외출장 일정표 참고해서 논의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네, 감사합니다.

(국외출장 일정표 검토)

○ 시흥신문대표 이희연

위원장님 정리를 하시죠.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여기 참석자 3명이면…….

○ 의정팀장 최민석

참석 위원의 3분의 2요.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참석 위원의 3분의 2요?

○ 의정팀장 최민석

네, 다섯 분 참석하셨으니까…….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5명 참석하면 3.3…….

○ 의정팀장 최민석

3.3이라서…….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표를 보시다시피 출장 목적에 집중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중에 뭐 과리를 빼든지 스페인 쪽을 좀 집중해서 계획을 바꿔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정도로 성안해서 가시는 것에 동의를 하면 우리가 오늘 찬성을 하고 그것이 아니고 개인 일정이나 출장 목적 우리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기대치에 이 계획으로는 너무 무리겠다. 뭐 다시 재의결을 올리더라도 오늘 이것으로 통과할 수가 없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반대 의견을 주시면 오늘은 5명이 지금 참석했기 때문에 4명, 가부 마찬가지로입니다. 찬성도 넷, 찬성 네 분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좀 해 보시려고요?

네, 결정의 시간을 보시고 자유롭게 한 3, 4분 쉬겠습니다. 쉬고 바로 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지)

(심사 계속)

○ 위원장 서정우법무사사무소 서정우

다 하셨죠?

그래서 의결 방법은 우리가 거수로 할 수도 있고 만장일치로도 할 수 있기는 합니  
다만 어떻습니까? 거수로 할까요, 깔끔하게?

(「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고민들을 하셨고 어쨌든 이것이 의결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의원님들이  
해외 공무 출장 가는 데 있어서 민간 위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걱정하시고 아까  
많은 의견을 추가로 덧붙여 주셔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진일보한 방법인 것 같  
습니다.

부결이 되어도 진일보 된 것이고 의결이 되어도 이 제도 자체가 의원님들 활동에  
긍정적 제안이 아닌가, 우리가 부정적으로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아주 긍정적 제안이 될 것 같아서, 또 뭐 그냥 다녀오시는 것보다 이  
렇게 우리가 많은 의견들을 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는 위원들은 바뀔 수 있겠지만 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영속할  
것이어서 이 제도가 앞으로 정착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의원님들도  
좀 조심해서 유의해서 다녀오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진행을 하면서 정말 보람은  
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출장일정은 9월 22일부터 9월 30일 9일간입니다.

방문지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지역쯤 되나요? 일정표 참고하셔서 설  
명 들으신 대로입니다.

계획서 내용은 아까 설명해 주신 위원장님이 일부 좀 구체성 있게 수정하기로 하  
셨던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찬성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안 물어보고 만장일치로 해도 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금까지 제시  
됐던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비록 의결은 해드리지만 이번 1회라는 것을 많이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1회 회의여서 바로 처음부터 부결하면 좀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  
다.

사실 저는 아까 느낌이 반반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부실한 것도 많고 의결 끝나고  
나서 그 하루 일정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공식일정은 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해 회의가 아니라면,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이고 사실 이

것이 미리 저희들한테 제출되어졌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논의 후에 나와서 그래서 아까 자료 부실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이런 것도 우리 사무국에서 옆에서 잘 보시고 오늘 문제가 됐던 자료들은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회의 중간에 또 받고 이러는 것은 아주 절차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문제로 발견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 다음에 조금 더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위원회 종료)

○출석위원 (5인)

서정우법무사무소	서정우
시흥신문 대표	이희연
새오름포럼 부이사장	김영곤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이스사업팀파트장	이자영
시흥시의회 의원	박춘호

○기타 참석자 (2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정팀장	최민석